



잡월드의 선 김(왼쪽) 사장과 에드워드 최 컨설턴트가 글로벌 아시안 채용 박람회 참가 팀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 취업 2세대들 기회 많아”

채용박람회 여는 ‘잡월드’ 선 김 대표

중앙일보 공동주최

“좋은 취업 및 고용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6일) LA컨벤션센터에서 중앙일보·중앙방송과 공동으로 ‘글로벌 아시안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선 김 잡월드 대표는 이번 행사의 성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번 LA 글로벌 아시안 채용 박람회는 잡월드가 두번째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다. 작년 10월 뉴저지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1회 글로벌 아시안 채용 박람회에는 45개 기업과 1400여명의 취업 지원자들이 참가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김 대표는 “박람회 후 조사해보니 10%가량이 취업에 성공했는데 이는 업계에서 대단히 높은 수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국 대기업들이 영어권 한인 인재 채용에 관심이 많다”며 “특히 가주는 한인들이 밀집해 있어 2세나

유학생 등 우수한 한인 인재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람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잡월드는 매년 5월 졸업 시즌에 맞춰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박람회에는 약 50여개의 기업들이 참가하며 이중 한국 대기업들이 70%를 차지한다.

김 대표는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이력서 20~30여장을 준비해야 하며 복장도 단정해야 한다”며 “관심이 있는 기업 부스에 가서 줄을 서 인터뷰를 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행사 당일 박람회 안내데스크에서 프로그램북이나 웹사이트(www.job-worldusa.com)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 조건 등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기원 기자